

“안방포교 가능성 보였다”

채널32 불교TV 개국 6개월

“불교TV를 통해 저희 가족은 불자다운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는 ‘자비의 천수천안’을 자주 보고 연예인 불자들의 이야기도 ‘김병조의 스타쇼’를 통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신행상담’이나 ‘퀴즈특급’이 뭐고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매번 시청을 합니다.”

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불심 가득한 내용에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안방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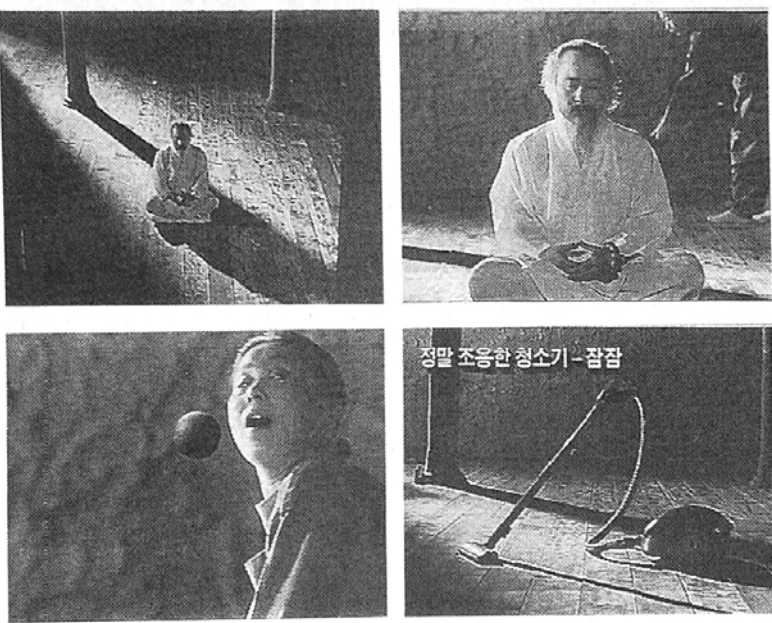
다”고 말한다. 방송 6개월을 넘겨 불교TV는 주간 방송시간을 3시간 30분 연장하고 부서에 편집기와 촬영장비를 배치해 지사

등 유선종합방송의 전반적인 방송환경 호조에 힘입고 있다. 불교TV를 시청하는 시청자수도 점차 늘어나 상위권의 시청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다. 6개월간 부장급 사원 2명을 비롯 제작국에서 8명의 경력직 전문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10%의 이직율을 보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김재일 회장은 “불교TV가 불자들의 생활을 이끌어 포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이 확인된 6개월이었다”며 “보다 전문성을 살리고 불교만의 장점을 살려 나갈때 다원적인 방송환경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원우 기자



◇ 열주알로 살생하는 장면이 묘사된 삼성전자의 ‘잠잠’ 광고의 주요장면.

‘열주알로 살생’ 청소기 광고 교계 ‘아연실색’... 항의 빗발

열주알로 파리를 죽이는 장면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삼성전자의 원발이 청소기 잠잠 ‘수도승’ 편. 조용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가 넘어진 파리를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그뒤로 승복자리를 입은 여인이 청소기로 파리를 죽이는 장면이 비춰지고 ‘헛-’ 하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그순간 수행자가 손에 끼고 있던 열주알을 날려 여인뒤에서 떨어진 파리를 잡는다. 그러자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결국 소음을 낸 것은 청소기가 아니라 열주알에 맞아 떨어진 파리였다는 것.

그 만큼 청소기의 소음이 적다는 것을 강조한 이 광고는 불살생계를 다름 아닌 열주로 ‘파계’시키는 아연실색을 범하고 있다.

제일기획이 제작한 이 광고는 95 크리스타 인터내셔널 광고제에서 본상을 수상해 더욱 불살생계를 무색케 한다. 8월15일 캐치원(CATV)방송에 3번의 시험방송이 나가고 신문지상에 광고 내용이 언급되면서 벌써부터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고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케이블TV를 통해 광고를 봤다는 마포 박보현화보살은 “자비문중인 불교의 도당에서 수행자가 살생하는 것을 모델로 청소기가 저소음이라는 것을 강

조한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한 종교의 기본가르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광고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다른 불자는 “보시와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장면들만을 묘사, 자사 제품을 최고로 선전하는 것은 기업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격려했다.

이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의 관계자는 “특정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의 정숙한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코믹성을 가미했을 뿐”이라고 변명.

도플선 기자

저소득 150가구에 ‘자비 손길’ 태고종 해원사, 쌀·라면 등 전달

태고종 해원사(주지 중운스님)는 중추절을 앞둔 지난 8일 관내 저소득주인 1백50가구에 각각 백미 20kg과 라면 1박스를 전달했다.

“추석은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이웃돕기행사에 박서봉 태고종총무원장, 진영호 상북구구청장, 신도동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중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박해가는 이웃에게 본래 성품을 찾아주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며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제19회 합동독도수계산

佛放 이사회 성원 미달 유회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불교방송 이사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불교방송이사회는 이날 △지 방국설립 및 운영규칙 개정 △사장직무대행의 건 △재단감사 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사 19명중 8명만 참가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열기로 했다.

태고종 소양시험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제19회 합동독도수계산

를 총1천4백여명이 안거를 이 수했다. 이날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안거수행의 공덕으로 신, 구, 의 3업을 청정하게 하고 중단의 교세확장과 중흥진작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佛放 이사회 성원 미달 유회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불교방송 이사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불교방송이사회는 이날 △지 방국설립 및 운영규칙 개정 △사장직무대행의 건 △재단감사 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사 19명중 8명만 참가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열기로 했다.

佛放 이사회 성원 미달 유회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해 3월 상무대 비리도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달 11일 사면된 조기현 전국신도회장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희장은 이날 이사회 유회에 따른 감담회에서 이사회에게 “교계에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전국신도회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tn 새 프로—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심깊은 이웃들의 이야기 다큐 편성

가을프로개편과 함께 9월 첫 선을 보인 휴먼다큐멘터리 ‘우리도 부처님같이’(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0분~11시10분)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에 방송된 ‘어느 도관수의 일기’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문화재를 보수하는 문화재 수리기술보유자 김상식씨(사진)의 삶을 통해 불심으로 아로새긴 삶이 소개되어 감동을 주었다. 16일에는 귀순한 불자유도선

수 이창수씨(한국마사회 코치)의 잔잔한 삶을 소개한다. 이창수씨는 북한대표로 있을때 만난 현재 부인인 대안유도선 수에게 불심이 달린 목걸이를 선물받고 불교에 귀의 한다. 귀순하여 월운스님과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사연과 북한에서의 부모님을 소개한다. 담당PD 장동호씨는 “부처님의 정신을 펴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 나가고 싶다”는 각오를 피력.

최근 경주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노선 변경시비가 재연되는 가운데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 이 오는 10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에 설악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해 주도록 정식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와 속초시 등 지역주민들이 “관공자원을 사장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해 결국 ‘없던 일’로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하는 이 산하를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의문이다. 6.27 지자체선거 후 각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백암산과 관악산 사이 수심만평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대동산 수리봉 일대에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 추진중이며 고성군에는 골프장 건설이 허가됐다. 또 4년전부터 설악산에 모

설악산 세계유산지정 반대라니...

일이 잇따라 허가돼 환경훼손 노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천혜의 자연이 남아 있는 강원도는 각종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천연림이 고스란히 보존돼

태고종과-이 속출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로 인한 연쇄현상 때문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수한 역사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는 천년 고도에 지속 2백Km이상의 고속전철을 개발할 줄 지나고

시위하고, 설악산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위해 등록하자는 제안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지역을 위하고 나아가 한국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또 묻고 싶다. “당대만 잘 살면 되는가라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홍수, 가뭄, 이상고온,

태고종과-이 속출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로 인한 연쇄현상 때문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수한 역사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는 천년 고도에 지속 2백Km이상의 고속전철을 개발할 줄 지나고

시위하고, 설악산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위해 등록하자는 제안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지역을 위하고 나아가 한국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또 묻고 싶다. “당대만 잘 살면 되는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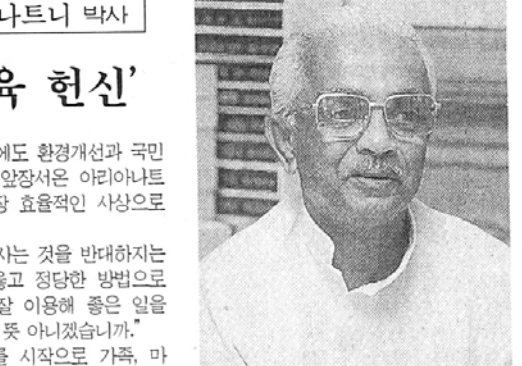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홍수, 가뭄, 이상고온,

스리랑카 사회복지 공로 ‘일가성’ 수상 아리아나트니 박사

유아원 7백여곳 설립 ‘교육 헌신’

지난 2일 스리랑카 사회복지에 애쓴 공로로 제5회 일가성을 수상한 아리아나트니 박사(64,스리랑카)는 모국에서 ‘모두 다 깨우치고 함께 나누는 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불자. 35년여를 가난과 범죄, 폭력에 맞서며 사회복지에 헌신해온 아리아나트니 박사는 1만여 마을을 돌며 의식개혁운동과 부처님 말씀을 전해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백여개의 유아원도 세우고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이외에도 환경개선과 국민 정신을 계도하는데 앞장서온 아리아나트니 박사는 그에 가장 효율적인 사상으로 불교를 손꼽았다. “부처님께서도 잘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옳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그것을 잘 이용해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부처님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격도야를 시작으로 가족, 마을 도시, 국가, 세계를 깨우치자는 6단계에 정신, 도덕, 문화, 사회, 경제, 정치의 여섯방면으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아리아나트니 박사.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끊임없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우)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벼락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원성-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2권 / 각권 값 6,500원

법구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2권 / 각권 값 6,500원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하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살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를 모르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찬란한 눈은 지적 유희가 바로 신(神)입니다. 이 존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빙임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담담한 만년다란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이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지다 그 몸이 들어올 것이다.

임제

RINZAI

조주

JOSHU

마조

MATZ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이츠포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기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